



미 증시, 마이크론 실적 부진에도 상승

미국 증시 리뷰

27 일(수) 미국 증시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급락한 마이크론(-7.1%) 등 AI 주의 변동성 확대도, 1 분기 GDP 확정치 하향 vs 내구재 주문 호조 등 엇갈린 지표 속 5 월 PCE 물가 기대감 등으로 소폭 상승(다우 +0.1%, S&P500 +0.1%, 나스닥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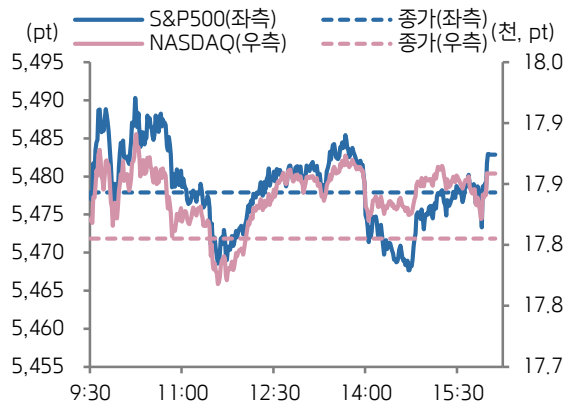
업종별로는 부동산(+0.9%), 경기소비재(+0.9%), 커뮤니케이션(+0.8%) 등이 강세, 필수소비재(-0.5%), 소재(-0.3%), 금융(-0.3%) 등이 약세. 마이크론(-7.1%)은 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가 선반영 인식 속 매출액 가이드가 시장에 부합하는데 그쳤다는 소식 등으로 급락. 약국 체인 월그린(-22.2%)은 헬스케어 사업 부문 호조에도 전반적인 실적이 기대에 못미친 가운데, 향후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급락.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나이키(+0.1%)는 유럽, 아시아 지역 판매 둔화로 분기 실적이 부진했다는 소식에 시간외에서 11%대 급락 중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모든 상황을 고려 시 4 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 동시에 데이터와 환경에 따라 인하, 동결, 인상 등 여러 경로를 열어둘 것이라고 언급.

미국의 1 분기 경제성장률 확정치는 1.4%(연율)로 전분기(3.4%)에 비해 큰 폭 감소했으나, 이전 수정치(1.3%)에 비해 소폭 상향. 미 상무부 측은 고정투자(3.3%→4.4%) 및 정부지출(1.3%→1.8%)이 상향 조정됐다는 점이 전반적인 성장률 상향을 이끌었다고 언급. 1 분기 코어 PCE 물가도 3.7%로 전분기(2.0%)에 비해 상승했으며, 이전 수정치(3.6%)보다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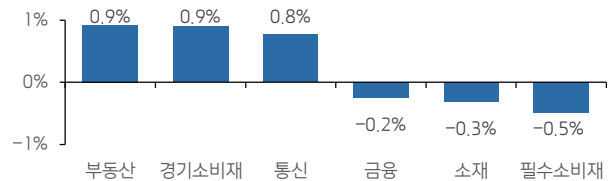
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3.2 만건으로 전주(23.9 만건) 및 컨센(23.6 만건)을 하회. 반면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는 183.9 만건으로 전주(182.1 만건) 및 컨센(182.0 만건)을 모두 상회. 5 월 내구재 주문은 0.1%(MoM)로 전월(0.2%)에 비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됐으나, 컨센(-0.5%)을 큰 폭 상회. 다만, 근원 내구재주문은 -0.1%(MoM)로 전월(0.4%)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전환했으며, 컨센(0.2%)도 하회.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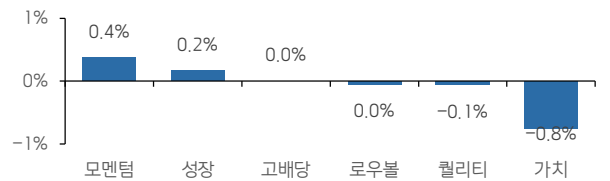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 주식시장 | | | 외환시장 | | |
|-------------|-----------|--------|-----------|----------|--------|
| 지수 | 가격 | 변화 | 지수 | 가격 | 변화 |
| 코스피 | 2,784.06 | -0.29% | USD/KRW | 1,385.90 | -0.21% |
| 코스피 200 | 382.27 | -0.19% | 달러 지수 | 105.91 | -0.13% |
| 코스닥 | 838.65 | -0.41% | EUR/USD | 1.07 | +0.01% |
| 코스닥 150 | 1,360.56 | +0.1% | USD/CNH | 7.30 | +0% |
| S&P500 | 5,482.87 | +0.09% | USD/JPY | 160.74 | -0.01% |
| NASDAQ | 17,858.68 | +0.3% | 채권시장 | | |
| 다우 | 39,164.06 | +0.09% | 국고채 3년 | 3.212 | +0.4bp |
| VIX | 12.24 | -2.47% | 국고채 10년 | 3.295 | +2bp |
| 러셀 2000 | 2,038.34 | +1% | 미국 국채 2년 | 4.712 | -3.5bp |
| 필라. 반도체 | 5,421.09 | -0.57% | 미국 국채 10년 | 4.286 | -4.3bp |
| 다우 운송 | 15,265.97 | -0.5% | 미국 국채 30년 | 4.426 | -3.6bp |
| 유럽, ETFs | | | 원자재 시장 | | |
| Eurostoxx50 | 4,902.60 | -0.27% | WTI | 81.74 | +1.04% |
| MSCI 전세계 지수 | 803.75 | +0% | 브렌트유 | 86.33 | +1.27% |
| MSCI DM 지수 | 3,520.21 | -0.01% | 금 | 2336.6 | +1.01% |
| MSCI EM 지수 | 1,086.20 | +0.08% | 은 | 28.92 | -0.04% |
| MSCI 한국 ETF | 65.79 | +0.84% | 구리 | 432.85 | -0.95% |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 | |
|---------------------|--|
|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 MSCI 한국 지수 ETF 는 +0.8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07%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9%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85.2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
| 주요 체크 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분기 GDP 성장률 하향, 연속 실업수당청구건수 증가 등 경기 둔화 시그널 7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실적 전후로 AI 관련주 반등 예상. 반도체 업종 주가가 쉬어갈 때 기존 주도주 내에서 순환매 랠리가 이어지는 국면 연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전일 나온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추가 하향, 연속 실업수당청구건수 증가 등 경기 둔화 시그널은 고금리 장기화 및 PCE 물가 우려를 완화.

미국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QOQ 1.4%(잠정치 1.3%, 4분기 3.4%)로 잠정치 대비 소폭 상향. 시장 예상에 부합한 수준으로 세부 항목별로 개인 소비지출 잠정치 2.0%에서 1.5%로 감소, 그 중에서도 상품 지출 -1.9% → -2.3%, 서비스지출 3.9% → 3.3%로 모두 추가 하향. 근원 PCE 물가는 3.6% → 3.7%로 상향되었지만 소비 지표의 하향폭이 더 컸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 애틀란타 연은 GDPNow의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추정치 역시 3.0% → 2.7%로 하향조정.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83.9만건으로 전주 대비 큰폭 증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감소했지만 고용시장 둔화 방향성 유효.

이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조정받았던 부동산, 경기소비재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 유입. 마이크론 실적 부진 이후 엔비디아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기업이 약세를 보였으나, 엔비디아 제외 빅테크는 긍정적인 흐름. 특히 전일 아마존의 시가총액이 처음으로 2조 달러를 돌파했고 그 근거는 결국 AI 개발과 구동에 필수적인 클라우드 시장점유율 40% 차지, 자체 AI에 투자 지속 등 AI 기대감이라는 점. 결국 반도체 업종의 약세는 건전한 단기 조정이라고 판단하며 7월 중순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등 실적 전후로 AI 관련주 반등 예상.

27일(목) 국내증시는 거래대금 부진 속 마이크론 가이던스 부진으로 위험선호 심리 위축되며 약세(KOSPI -0.29%, KOSDAQ -0.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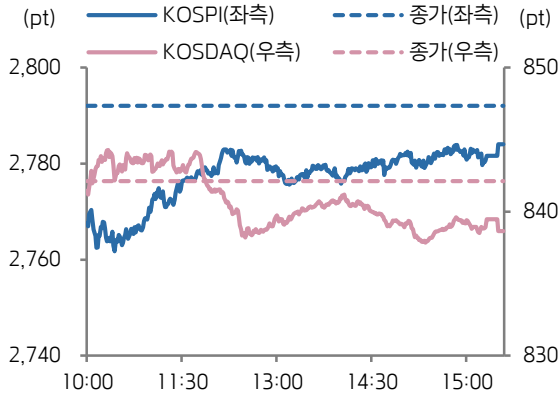
금일에는 미 경제지표 둔화 및 시장금리 하락 등 완화적인 매크로 환경에도 불구하고 PCE 물가지수,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둔 경계심리 유입되며 제한적인 등락폭 보일 것으로 예상.

미 대선 관련 첫 TV 토론 이후 9월 두번째 토론일까지 긴 시차, 사법리스크 관련 대선 이전 트럼프 재판일정 부재. 두 후보의 지지층은 고정되어 있고, 지지율 격차 1~2%p에 불과하므로 1차 토론 직후 중도층의 표심이 분위기를 좌우할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 상승 시 감세, 규제완화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책대 우려 부각되며 국채금리에 상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으로, 이차전지, 신재생 관련주 변동성 확대 예상.

전일 한미반도체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 약세 보이며 수출주로 수급 재확산. 코스피 상승 기여도 및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삼성전자, 현대차, HD현대일렉트릭, HD한국조선해양. 자동차, 전력기기, 조선 업종으로 좁혀진 가운데 일부 방산, 음식료, 화장품 업종 역시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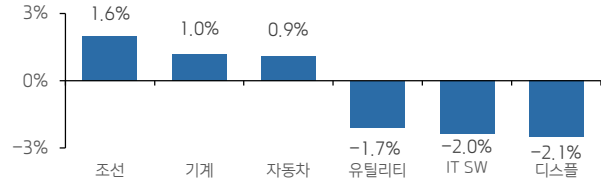
원달러 환율은 지수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 전일 1390원대를 상회한 이후 1380원대로 하락 마감하며 변동성 확대. 엔화 약세로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약세, 최근 유로화 약세 및 달러 강세 등이 요인인 것으로 판단. 특히 엔화의 경우 BOJ의 금리인상, 장기국채 매입 축소 시사 이후 미-일 금리차는 축소되고 있지만 엔화는 약세를 보이며 동행성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투기적 수요에 기인할 가능성. 그럼에도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수급 이탈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출 경기 호조 및 실적 모멘텀은 훼손되지 않았다고 판단. 미국 반도체 조정 이어진다면 미국향 수출 증가 및 2분기 실적 컨셉의 랠리 연장될 것.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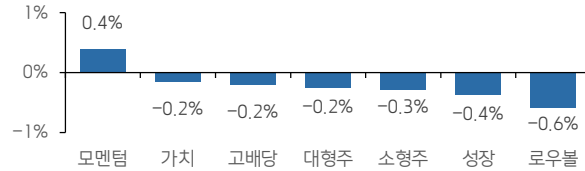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6월 27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